

# 홍콩시위 '反中' 노골화...中 무력투입 고민

공항 점거하고 오성홍기 불태워 미국 무역협상 연계, 서구 압박 유혈진압 제2 텐안먼 사태 우려 중지도부 무장경찰 투입 망설여

사태로 이어질 경우 '제2의 텐안먼 민주화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작음하면서 중국 지도부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지는 형국이다.

2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초부터 중순까지 열린 중국의 전·현직 수뇌부 모임인 베이다이허 회의의 기간 중국 정부는 수천 명의 무장 경찰을 선전에 배치하고 진압 훈련 모습을 공개해 홍콩에 본토의 무력 진압이 임박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난 뒤 지난 달 18일 170여만명이 참가한 홍콩 대규모 주말 시위가 평화적으로 끝나고 홍콩 특구 정부가 대대적인 체포 작전에 나서면서 홍콩 사태는 본토 개입 없이 잠잠해지는 듯 보였다.

이후 지난달 24일 또다시 폭력 시위가 격화하면서 홍콩 경찰이 물대포 차를 투입하고 실탄 경고 사격까지 했으며, 지난 1일

시위에도 경찰은 실탄 경고 사격에 이어 '렙터스 특공대'까지 지하철에 투입해 시위자를 체포하면서 상황이 나빠지는 국면이다. 특히 지난 주말 시위에는 중국을 상징하는 오성홍기가 불태워지는 등 중국의 주권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동이 재연돼 중국 지도부로서는 계속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오는 10월 1일 신중국 건립 7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 중인 상황에서 홍콩의 폭력 시위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장 중국 본토의 무력을 투입해 홍콩 사태를 진압하기에는 후폭풍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홍콩 문제를 사실상 연계시킨 데다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이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인들의 시위를 지지하면서 중국의 무력 진압은 안 된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

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하고 중국 본토의 무력이 개입해 홍콩 사태를 마무리할 경우 대외 신뢰도 추락으로 홍콩의 아시아 금융 중심지 기능이 사라지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힘든 중국 경제에도 또 다른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홍콩 경찰의 시위 주모자 체포와 강경 진압에도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강경 진압이라고 반발하는 홍콩 시민들도 적지 않아 자칫 중국 본토 무력 개입으로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경우 30여년 전 텐안먼 사태로 번질 우려도 있다.

한 소식통은 "중국 지도부는 10월 신중국 건립 70주년 행사의 성공을 위해 그 전에 홍콩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면서 "하지만 본토 무력 개입은 잘못될 경우 중국 지도부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고 중국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망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196> 아율대석

아율대석(耶律大石, 1087~1143)의 자는 중덕이고 호호는 덕종이다. 요나라 태조 아율아보기의 8대 손이다. 요나라가 금나라에 복속되자 중앙아시아로 서진해 서요(西遼) 왕조를 세웠다.

천조제(天祚帝)는 요의 마지막 황제다. 8대 황제 도종의 황태손으로 1101년 도종이 죽자 황위를 계승했다. 그러나 요 왕조는 오랜 정쟁으로 거의 붕괴 직전이었다. 사냥에 깊이 빠져 정치를 등한시했다. 특히 간신을 총애해 통치 질서가 크게 흔들렸다. 아율대석은 요 왕조가 기울어가는 가운데 관직에 나갔다. 1115년 진사에 급제해 한림응봉을 거쳐 승지에 임명되었다. 그해 여진족의 완안아골타가 독립해 금나라를 세웠다. 이후 태(泰)와 상(祥) 두 주의 진사와 요흥군절도사를 역임하였다.

했다. 1128년 금나라 포로가 된 천조제가 사망하자 1132년 2월 정식으로 황제에 즉위했다. 천우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연경으로 정해 서요 왕조를 건국했다.

대석은 요나라 패망을 교훈 삼아 각 종족간 화해와 융합을 국경 운영의 원칙으로 삼았다. 황제 취임 후 약 10년간 투르크스탄 경략에 힘을 기울였다. 1141년 셀주크 왕조의 술탄 산자르가 이끄는 이슬람 군대를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근처에서 격파했다. 이로써 아무다리강과 시르다리강 사이의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다. 이후 호라즘 사왕조를 정벌해 복속시켰다. 그는 다민족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종교에 대한 관용적 입장을 견지했다. 어떤 신앙도 강요하지 않았고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대우했다. 이슬람교, 불교, 경교, 마니교, 토속신앙 등이 골고

## 中 왕이 北 방문...김정은 10월 방중 논의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10월에 중국을 방문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왕 국무위원은 2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방문한다. 중국 외교부는 왕 위원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해 리 외무상과 회담할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다음날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왕 위원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확인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왕 국무위원의 이번 방문은 양국이 최고 지도자들의 공동 인식을 실현하고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후속 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중은 최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교류를 하면서 밀착하고 있다. 지난달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했고 김영재 대외경제상은 창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경 대변인은 올해가 양국 수교 70주년이고,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성공적으로 방문해 양국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인 시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5차 방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왕 위원은 방북 기간에 리 외무상과 김 위원장의 방중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왕 위원은 김 위원장과도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최고등급인 5등급의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카리브해 바하마를 강타한 1일(현지시간) 그레이트아바코섬 마쉬허버의 거리에 부서진 주택 잔해와 뿌리째 뽑힌 나무, 끊어진 전선 등이 널브러져 있다. /연합뉴스

## 풍속 300km 도리안 바하마 강타...“재앙 수준”

### 美 본토 해안지역도 초긴장

최고 등급인 5등급의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시속 300km에 육박하는 강풍과 폭우를 몰고 카리브해 바하마를 강타했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NHC)에 따르면 도리안은 1일(현지시간) 오후 바하마의 아바코섬과 그레이트아바코섬에 차례로 상륙했다.

도리안은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최고 풍속 297km(185마일)/h의 강풍을 동반한 채 아바코섬의 엘보 케이에 상륙했으며 오후 2시께 인근 마시하버로 진격했다. 도리

안이 상륙한 지역에선 건물 지붕이 뜯겨 나가고 자동차가 뒤집히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전신주가 쓰러지며 전력 공급이 중단돼 수백여명의 주민이 학교와 교회 등으로 대피했다. 진행 경로에 있는 바하마가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미 본토도 도리안이 가까이 다가오자 잔뜩 긴장한 모양새다. 현재 도리안은 시속 11km의 속도로 느리게 북상 중이다. 1일 밤에서 2일 오전 사이 그랜드바하마섬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경로상 도리안은 바하마를 지난 뒤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미국 남동부 해안을 따라 올라갈 전망이다. /연합뉴스

## 요 태조 8대손, 중앙아시아에 서요 건국

완안아골타는 독립을 선언하고 요나라가 통치하던 여진의 전조기치 영강주를 함락시켰다. 1115년 9월 금나라 군대는 길림의 황룡부를 점령하고 12월 요의 대군을 격파했다. 요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1120년 금나라는 세방향으로 수도 상경을 공격해 함락시켰다. 이런 와중에 천조제는 부인과 아들을 죽이는 참극을 초래했다. 문비와 그녀 소생의 진왕을 죽였다. 문비 여동생의 남편 아율여도는 살해를 우려해 금나라로 탈주했다. 1125년 정월 천조제는 금나라 군대에 포로로 잡혔고 요나라는 멸망했다.

1122년 금나라 군대가 계속 남행하자 대석은 연경을 방어했다. 천조제가 내몽골로 달아나자 천조제의 숙부인 아율순을 황제로 옹립해 연경에 복요 정권을 수립했다. 아율순이 죽자 그의 처 소덕비를 태후로 세우고 연경을 방어했다. 1123년 연경이 함락되자 부

루 전파되었다. 서요 산하의 속국들은 조공을 바치고 한 명씩의 관리를 중앙에 파견하였다. 가구당 1디나르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종교, 문화, 경제에 관해 관용적인 정책을 편 까닭에 거주민의 민심을 얻었고 빠른 시일내에 서역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후일 금의 아율조제가 말하기를 “문화와 교역을 중시하고 장려해 서역인들은 지금도 아율대석을 기리고 있다.”

대석은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보여 주었다. 강력한 금나라 군대를 여러 차례 격파하였다. 10만의 송나라 군대의 공격을 잘 막아 연경을 지킬 수 있었다. 황제 즉위 후 금나라를 정벌해 옛 요나라를 복원하려 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이후 중앙아시아로의 세력 확장에 주력했다. 셀주크 왕조와 호라즘 왕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 서요는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패자가 되었다.

서요는 통치 지역이 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독립적인 정권을 유지했다. 중원을 장악한 금왕조조차 서요의 군사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회유 정책과 포용 정책을 적절히 구사해 다민족간의 민족갈등, 종교갈등, 계급갈등, 지역갈등과 회합을 맺었다. 1131년 금나라는 대군을 동원해 가둔성을 공격했지만 대석은 쉽게 금군을 격파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신창동 가도빌딩, 근린상가 2층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대출-3억5000만원있음 즉시입주가능
- 임대 - 보증금1억에 월400만 가능
- 매매 - 매수자 제시 요망(9월10일까지)

문의. 010-3605-5000